

〈효자호랑이〉의 연행과 젠더 주체의 형성

김영희*

— <차 례> —

1. 들어가며
2. ‘남-聖/여-俗’의 구도와 위계적 젠더 경계의 자연화
3. 비극적 결함(하마르티아, *hamartia*)으로 표상된 ‘여성의 죄’
4. 〈효자호랑이〉의 연행과 젠더화된 주체의 생산
5. 젠더화 기획에의 공포와 탈주
6. 나오며

〈국문요약〉

〈효자호랑이〉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로 변신을 반복하다 아내의 실수로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효자의 이야기다. 〈효자호랑이〉는 변신을 가능케 하는 주물(呪物)을 불태운 아내의 행동 때문에 남편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극적 주제와 플롯을 구현하는 구전서사다. 이 이야기의 비극적 필연성 내에서 파토스를 야기하는 결함(하마르티아)으로 구성되는 것은 맹목과 무지, 공포와 혐오에 휩싸여 자기 행동의 의미와 효과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금기를 파기하는 효자 아내의 위반 행위다.

변신(變身)은 그 자체로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넘나드는 주술적 능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존재의 이행과 이중성을 상징하므로, 변신 능력을 지닌 효자는 성적(聖的) 존재를 표상한다. 반면 금기의 존재와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결과에 대한 예측과 통찰 없이 오직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행동에 나서는 효자의 아내는 드러난 형상 그대로 세속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男)-성(聖)·여(女)-속(俗)’의 대비 구도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젠더 경계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남성’ 우위의 위계적인 관계 구도를

* 연세대학교 강사

정당화한다.

비극적 결함을 구성하는 아내의 금기 위반은 의도하지 않은 행위이며 필연적 결핍과 한계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서사와 연행 상의 전략을 통해 윤리적인 과오, 곧 '죄'로 기술된다. 효자 아내의 과오는 성(聖)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兩價的) 태도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와 불안을 대리한다. 또한 <효자호랑이>는 '남성' 위주의 연행과 입사적(入社的) 연행 효과를 통해 '남성' 주체의 집단적 결속과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며, 개별 연행자를 공동체적 가치·규범에 부합하는 주체로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이 주체화 과정은, '남·여'의 젠더 규범과 가치·질서에 기초한 젠더 정체성을 스스로 기입하는 개별 연행자의 자발적 동화와 공모에 토대를 두고 있다.

<효자호랑이>의 연행은 '남성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여성의 죄'라는 시나리오의 수행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화된 주체를 생산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행은 서사·연행 층위 상의 균열과 연행의 개방성 및 다성성(多聲性)으로 인해 연행이 반복되고 전승이 지속될수록 젠더화의 기획을 이탈하는 변화의 징후를 드러낸다. 젠더 경계와 규범을 벗어나는 어긋난 수행을 통해 탈주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제어 비극적 구전서사, 효자호랑이, 서사와 연행, 비극적 결함, 여성의 죄, 남·성·여·속, 주체화, 젠더화의 기획, 젠더화된 주체, 연행의 개방성, 연행의 다성성, 서사와 연행 층위 상의 균열, 탈주 징후

1. 들어가며

<효자호랑이>는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바란 효자가 약이 될 동물의 간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로 변신했다 인간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다가 변신을 가능케 하는 주술 도구를 불태운 아내 때문에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호랑이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효자의 성씨를 강조하는 연행 맥락에 따라 ‘황호랑이’, 혹은 ‘홍호랑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¹⁾ 1960년대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전설’²⁾로 주목받아왔다. <효자호랑이>가 이처럼 이른 시기에 주목받은 이유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광포전설(廣布傳說)’³⁾이면서 비극적 주인공의 형상이나 ‘전설’의 비장미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데 있다.

당시 연구 목적은 <효자호랑이>에서 ‘전설’ 장르의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전설’의 성격을 기술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작품에 구현된 비극성의 다층적 의미나 미학적 자질에 대한 입체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남성 연행자들 사이에서 전승되는 독특한 연행 특질은 물론, 입사적(入社的) 성격을 띠는 연행 구도나 간발의 차이로 좌절하는 비극적 주인공의 형상, 그리고 주인공과 가까운 인물에 의한 금기 파기와 극단적 파국에 이르기까지 <효자호랑이>는 서사와 연행 측면에서 비극적 구전서사⁴⁾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따라서

-
- 1) 여기서는 이야기 내용과 주제에 주목하여 ‘효자호랑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다.
 - 2) ‘전설’은 ‘화자’들의 신뢰나 증거물, 역사와의 연관성, 민담의 형식성 부재 등을 기준으로 한, ‘신화’·‘전설’·‘민담’의 삼분체계 내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78 참조;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참조)
 - 3) <효자호랑이>를 ‘광포전설’로 주목한 이는 최래옥이었다. 그는 “1. 구비전설로서 많은 자료의 현지채록이 현재 가능할 것, 2. 그 자료가 세계적인 설화와 비교될 수 있거나, 한국적인 특색을 갖고 있을 것, 3. 다양한 변이가 있는 인기 있는 전설이면서 특징 있는 분포도를 작성하는 데 적당할 것, 4. 전설의 특징인 역사성과 비극성이 잘 드러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장자못 전설’·‘아기장수 전설’·‘오누힙내기 전설’·‘홍수전설’·‘효자호랑이 전설’·‘조룡대 전설’을, 비극성을 드러내는 한국의 대표 전설로 선별하였다.(최래옥, 「한국 효행 설화의 성격 연구-효자호랑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0, 민속학회, 1977 참조;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그 변이와 분포를 중심으로』, 일조각, 1981 참조.)
 - 4) 이 글에서 ‘구전서사(oral-narrative)’는 ‘구전이야기’와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이야

이 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설’보다는 ‘비극적 구전서사’⁵⁾의 틀로 <효자호랑이>를 조명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제1원리, 또는 비극의 생명과 영혼은 플롯”⁶⁾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플롯의 각 요소는 모두 주인공의 과멸로 형상화되는 ‘파토스(pathos, 파국 혹은 고통)’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이 ‘파토스’를 향한 마지막 정점은, 피할 수 없는 과오나 필연적으로 예정된 운명으로서의 ‘하마르티아(hamartia, 비극적 결함)’다. ‘무지’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이나 스스로 그 의미와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속성이 비극적 주인공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요소로 ‘발견’되고 이를 통해 서사 전개 방향이 급속도로 전환할 때 바로 그 행동과 속성이 비극적 필연성을 이끌어가는 핵심 고리인 ‘과오’나 ‘결함’, 곧 ‘하마르티아’를 표상한다.

<효자호랑이>에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 비극적 파토스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은 효자의 아내가 남편의 비밀을 발견하고 변신 주술 도구를 불태우는 바로 그때이다. 효자의 아내는 남편의 ‘변신’을 기괴하고

기’와 ‘서사를 굳이 구분해서 논하자면, 전자가 연행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험적 용어에 가까운 반면 후자는 연구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평적이고 분석적인 용어에 가깝다. 여기서 ‘구전’은 서술(narration)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구술-연행을 통해 서술되고 전승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적 수식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전서사(口傳敍事)는 그 존재와 형태 면에서 반드시 ‘연행(performance)’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구술(oral-narration) 서사 텍스트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5) 여기서 ‘비극적 구전서사’는 내용적으로 비극적 세계관에 기반한 주제가 구현되고, 형식적인 면에서 비극적 플롯이 드러나며, 구전(口傳, oral-tradition)의 연행(演行, performance)을 통해 창작·향유되면서 비극적 효과를 발휘하는 구전서사를 가리킨다. 여기서 ‘비극적(tragic)’이라 함은, 소위 그리스 비극으로 지칭되는 역사적 장르, 혹은 양식으로서의 ‘비극(tragedy)’이 아니라 비극적 자질이나 경향성을 암시하는 개념적 수식어에 가깝다.
- 6)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6장,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1998(개정판 12쇄), 51면.

공포스런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징그럽다’는 말로 표현되는 아내의 혐오 내지는 공포는 남편의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거나 변신 주문을 외우는 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등의 문제를 따질 겨를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남편의 애정과 열정이 아내에게는 그저 위협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짐승으로 변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 만큼 남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효의 가치가 그 아내에게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효자의 아내는 남편이 왜 호랑이로의 변신을 감행하려 했는지, 전혀 궁금해 하지 않는다. 그저 불쾌하고 혐오스럽다는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뿐 사건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따져보는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효자의 아내가 그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알려 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녀는 변신의 동기와 목적을 알려 하지 않으며 변신에 담긴 의미나 변신할 수 있는 남편의 가치에 대해 질문을 품지 않는다. 그녀는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저 주어진 상황과 결과에 반응하기만 한다. 마치 처음부터 질문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혹은 애초에 질문 자체가 금지되거나 봉쇄되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효자호랑이>에서 효자의 비극은 전적으로 변신 주술 도구를 불태운 아내의 잘못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남편을 파멸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 아내며,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상실케 한 어머니며, 병들어 누워 있던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며느리다. 따라서 이 ‘여성’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녀는 ‘여성’에게 부과된 모든 당위적 가치와 규범을 위반한 존재며, ‘여성’을 소환하는 모든 사회적 호명(呼名)에 대해 ‘어긋난’ 수행을 한 존재다. 효자의 아내는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외에, 가족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죄, 가정을 구성하고 지키는 모든 친밀감과 애착 관계, 그리고 가족 내 수직적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인 ‘효(孝)’의 가

치를 부정한 죄를 안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그녀가 효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변신의 동기와 이유를 따져 묻지 않은 것이라면, 그보다 더 앞서 그녀에게 질문이 금지되어 있거나 그녀 스스로 질문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라면 이것은 아내의 존재론적 한계일지언정 '죄'는 아니다. 더구나 아내는 남편의 변신을 멈추게 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의도-남편을 죽이겠다거나 축출하겠다-도 갖지 않은 채 순간적인 혐오감에 휩싸여 주술 도구를 불태우며, 자신의 행동이 남편의 과멸이나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 그녀의 행동은 윤리적인 과오이기보다는 필연적인 결핍에 가까운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변신을 가능케 하는 책을 불태우는 아내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남편이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가 제시되기 전까지 아무도 변신에 관한 금기를 알지 못한다. 효자의 아내 역시 금기의 내용과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책을 불태운 것이다. 금기는 그녀의 행위 이후에 그 결과를 통해 비로소 가시화된다. 금기의 존재와 의미가 위반 행위를 통해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효자의 아내는 금기를 제시받지도 않고 금기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금기를 위반한 존재가 된다. 금기 위반의 혐의는 사실상 그녀에게 부당한 죄목인 셈이다.

그녀에게 씌워진 '죄'의 혐의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인간과 동물 내지는 문명과 자연이 서로 존재속성과 세계를 바꿔가며 경계 구분 없이 뒤섞일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 곧 존재론적 필연에 있다. 자연은 인간 주도로 질서화된 상태로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 뿐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인간 세계 주변에 머물 수 없다. 질서화된 세계와 질서화되지 않은 세계, 분화된 세계와 미분화된 세계 사이의 구분이야말로 인간을 자연적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서 현존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모든 금기

와 의례·주술은 이와 같은 경계를 명확하게 세우고 튼튼하게 다지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다. 또한 어떤 질서화의 의도에도 완전히 포섭되지 않고 어떤 통제 욕망에도 완전히 대상화되지 않는 자연의 광포한 위력야말로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며, 인간이 이 모든 경계에 대해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다.

변신은 인간과 자연, 질서화된 세계와 질서화되지 않은 세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며 그 자체로 미분화의 혼돈을 표상하는 상징적 행위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서’ 내지는 ‘인간의 현존’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호랑이로 변신하는 효자의 변신은 필연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존재의 과멸을 부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내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세운 일이며, 인간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성취한 일이 된다.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과업이 여성만의 몫이 아니고, 과업을 통해 성취되는 결과 역시 여성만의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효자의 아내는 인간 현존을 대표하는 존재며, 인간의 필연적 한계와 존재론적 운명을 대리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때 효자 아내의 한계와 결핍으로 여겨졌던 무지와 침묵-질문하지 못함, 혹은 질문할 수 없음-역시 그녀만의 것은 아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경계가 허물어진 현실 앞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을 인간은 없으며, 정상성에 간혀-혹은 정상성에 매달려-살아가는 인간 앞에 비정상적으로 규정될 모든 비동질적 표지-인간이면서 호랑이고 호랑이면서 인간인-들은 지극한 혐오의 대상일 뿐이다. 남편의 변신을 기괴스런 일로 받아들인 아내의 판단과 정서적 반응 역시 그녀만의 한계이기에 앞서 인간 모두가 타고난 ‘흠’인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흠’이 처음부터 ‘여성’⁷⁾ 고유의

것이었던 듯이, ‘남성’은 아니고 오직 ‘여성’에게만 존재한다는 듯이 서술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과오’는 연행을 통해 해석과 재맥락화의 순환회로를 거듭하는 동안 어느새 ‘여성의 죄’로 굳어지고 연행자들은 입을 모아 아내의 행동을 질책하는 논평적 처벌을 반복한다. 그리고 논평을 반복하는 <효자호랑이>의 연행자들은 대부분 ‘남성’이며 연행 조건 역시 ‘남성’ 주체의 입사(入社)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내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냉정하고 치밀하게 다시 질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간의 한계가 ‘여성’의 한계로, 인간의 현존을 초래한 과업이 ‘여성’의 과오로, 의도하지 않았고 피해갈 수 없었던 한계와 결핍이 ‘여성’의 윤리적 ‘죄’로 재기술되는 과정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다.⁸⁾

7) 이 글에서 ‘여성’, 혹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젠더 명칭을 수용한, 젠더화된 기표에 지나지 않는다. 생물학적 차이에 관한 논의나 사회학적 성역할 담론의 주장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성적(性的) 영역이나 논리적으로 확정된 성적(性的) 영도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8) 강진옥은 <효자호랑이>가 아들의 ‘효행’ 이면에 어머니-아들의 끈끈한 연대에서 배제된 아내의 소외가 있음을 고발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인식케 함을 지적하였다.(강진옥,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 『민속연구』 1,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1 참조) 최혜진은 ‘문헌설화’와 ‘구전설화’에서 효행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했으며(최혜진, 『효행설화의 구조와 의미-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 숙명여대 어문학연구소, 1996 참조), 김명희는 효(孝)와 열(烈)의 가치가 ‘호랑이-여성’ 관계로 형상화된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김명희, 『설화 속에 나타난 호랑이와 여성』, 『강남어문』 9,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1996 참조) 김수연은 가족체계 내에서 아내가 타자화되는 층위와 함께, 사회적 이념 체계 하에서 타자화가 심화되는 층위가 존재함을 역설하였다.(김수연,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난 효와 여성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참조.)

2. ‘남-聖/여-俗’의 구도와 위계적 젠더 경계의 자연화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효자호랑이>의 전체적인 연행 및 전승 개요는 다음과 같다.⁹⁾

번호	제목	연행자			조사 지역	조사일	자료 출처
		이름	성별	나이			
1	둔갑법으로 호랑이가 된 채 죽은 사람	장영재	남	65	영동군 양강면	1982. 8. 5.	대계 3-4
2	호랑이 황팔도	이영래	남	70	당진군 면천면	1980. 6. 26.	대계 4-1
3	호랑이로 변신한 효자	이홍규	남	49	보령군 웅천면	1981. 3. 3.	대계 4-4
4	호랑이 황팔도	김재식	남	76	보령군 오천면	1981. 3. 6.	대계 4-4
5	효자 황팔도	윤천금	남	77	부여군 온산면	1982. 1. 9.	대계 4-5
6	효자 황팔도	김지갑	남	72	부여군 내산면	1982. 1. 20.	대계 4-5
7	황팔도 전설	임태순	남	64	부여군 구룡면	1982. 1. 11.	대계 4-5
8	황효자 황호랭이	이원승	남	78	부여군 홍산면	1982. 2. 8.	대계 4-5
9	황팔도 이야기	송영백	남	72	부여군 증화면	1982. 2. 12.	대계 4-5
10	황호랑이 황팔도	이호승	남	77	공주군 사곡면	1983. 11. 30.	대계 4-6
11	효자 호랑이	유계순	여	60	남원군 이백면	1979. 8. 2.	대계 5-1
12	호랑이가 되어버린 이진사	이순근	남	79	완주군 운주면	1980. 1. 31.	대계 5-2
13	호랑이가 된 효자 남편	김대현	남	68	완주군 고산면	1980. 1. 29.	대계 5-2
14	금산의 김생원 호랑이	김원채	남	82	고흥군 과역면	1983. 2. 4.	대계 6-3

9) 아래 조사표를 정리하기 위해 참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두창구, 『동해시 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1.; 이복규 편저, 『이강석 구연설화집』, 민속원, 1999.; 임석재, 『임석재 구전설화전집』 1~12, 평민사, 1987~1990.; 최웅·김용구·함복희, 『강화설화총람』 1~8, 북스힐, 200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 및 부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9.

15	범이 되어 효도하다 죽은 황팔도	김연규	남	67	경북 군위군 부계면	1982. 8. 7.	대계 7-12
16	가설리 최호랑이	이필녀	여	66	진양군 수곡면	1980. 8. 6.	대계 8-3
17	범이 된 봉의리 효자	손윤호	남	68	밀양군 산내면	1981. 7. 28.	대계 8-8
18	황호랑이	이경수	남	65	보은군 보은읍	1974. 10. 11.	임석재 6
19	人虎	김규태	남	65	진안읍 상리	1969. 8. 14.	임석재 7
20	人虎	유봉식	남	765	진안군 용담면	1969. 8. 18.	상동
21	人虎	강태희	남	59	진안군 상전면	1969. 8. 16.	상동
22	홍범(洪虎) 전설	김이준	남	63	의성군 비안면	1968. 8.	류증선
23	황개 천 마리로 어머니 병 낫긴 효자	이강석	남	78	익산시 용동면	1993. 1. 21.	이강석
24	호랑이로 변신한 정효자	최상익	남	73	영월군 주천면	2004. 10. 1.	강원설 화 4
25	홍호랑이 이야기	김형욱	남	80	동해시 구미동	1998. 7. 10.	동해시
26	인호랑이	이종성	남	63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996. 2. 9.	김영희 현지조 사자료
27	황호랭이	이정순	여	77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1997. 2. 21.	상동
28	구만동 홍효자	손기태	남	76	밀양시 산내면 팔풍노인정	2001. 2. 25.	상동
29	홍범 이야기	이강호	남	61	밀양시 산내면 양촌리 봉의	2002. 1. 8.	상동
30	홍호랑이 이야기	백필경	여	84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동명	2002. 6. 1.	상동

<효자호랑이>의 서사단락들은 전체적으로 지속 지향이 강한 편이다. 특히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장면이나 호랑이로 변신하는 장면, 효자의 아내가 변신 관련 책을 불태우는 장면, 영영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효자가 좌절하고 호랑이로 살아가는 장면은 어느 각편에나 등장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지속 지향이 강한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효자호랑이> 이야기의 뼈대를 재구성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서사 전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1. 옛날에 효자가 살았다. → 2. 어머니가 병이 들어 병을 낫게 할 방법을 구했다. → 3. 일정한 수의 개가 있으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다. → 4. 효자가 호랑이로 변하여 개를 물어오기 시작했다. → 5. 정해진 양을 채워갈 무렵 효자의 아내가 남편의 변신 장면을 목격하였다. → 6. 아내가 변신에 필요한 책을 불태워버렸다. → 7. 효자가 영영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 8. 효자가 호랑이로 살다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였다.

<효자호랑이>의 서사는 호랑이로 변하고자 하는 효자와 이를 거부하는 아내 사이의 갈등을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 갈등의 배후에는 효자의 어머니가 존재한다. 효자의 어머니는 변신의 동기와 이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자의 아내와 간접적으로 갈등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 효자의 어머니는, 일상 범주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인간 세계의 규범으로는 해서도 안 되는 변신을 시도케 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효자와 갈등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다. 효자가 파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변신을 시도한 데 있다면 이 변신 자체는 어머니에 의해서 추동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갈등은 가족 관계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 상호 간의 심리적 역동을 타고 흐른다. 효자의 변신은 어머니를 향한 애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분명 인간 존재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건 모험이라는 점에서 분명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낸다. 효(孝)의 강박적 실천이 모자(母子) 사이의 심리적 유착 관계-분리와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나 불안을 부분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아들은 다른 어떤 가치도 고

려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에 매달린다. 그래서 변신의 위험이나 사후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몰두하는 것이다. 물론 아내와 상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에 아내와의 관계나 아내의 입장 따위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 여기서 자신과의 관계보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한 효자와 그 아내 사이의 갈등이 짝트는 것이다. 이때 효자의 무리수는 효행(孝行)의 명분을 띠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효자 아내의 원망은 처음부터 불효(不孝)이며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부덕(婦德)을 가르친 윤리적 과오로 규정된다.

이런 구도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잠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핵심 갈등은 어머니에 대한 도리나 애정을 아내와의 관계나 인간으로서의 규범보다 더 우선시한 효자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서사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효자의 선택이 아니라 효자의 효행을 가로막는 아내의 과오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효자’·‘어머니’·‘아내’라는 작중 인물의 호명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변신을 둘러싼 갈등이 ‘효를 실천하려는 아들’과 ‘효행의 일방적 수혜자인 어머니’, ‘아내이자 며느리인 여성’이라는 삼각 구도의 가족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내에 대한 윤리적 처벌의 의도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삼각 관계에서 ‘남성’인 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아닌 타인(어머니)을 위하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희생의 주체로 등장하는 반면, ‘여성’인 어머니와 아내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욕망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남성’인 효자는 동기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주체며 자신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자각하고 예측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주체다. 그러나 ‘여성’인 아내와 어머니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유추하거나 행위 결과를 예측하는 이성적 사고나 통찰을 하지 못하는 존재며, 생존에의 욕망이나 즉

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외에 다른 구체적인 행위 동기를 갖지 못하는 인물이다.

어머니는 행위 주체로 등장하기보다는 효자의 행위 동기를 암시하는 존재로만 등장할 뿐이다. 효자의 어머니가 좀더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띠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각편에서, 그녀는 수명 연장의 욕망이나 어린 아이 같은 어리광 때문에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어리석고 탐욕스런 인물로 그려진다.¹⁰⁾ 아내는 아무것도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 해도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녀는 남편의 ‘비밀’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행동에 나선다. 그녀가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감정이다. 그는 남편의 ‘변신’을 목격하는 순간 공포와 불안, 그리고 혐오스런 감정에 휩싸인다. 그녀에게 남편의 ‘변신’은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기괴스런 사건일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남편이 동물로 남게 되고 결국엔 남편이-때론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마주하고서도 그녀 스스로 자신이 드러낸 ‘비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반성이나 후회가 없다.

반면에 효자는 ‘변신(變身)’이라는 주술적 능력을 획득한 인물이다. ‘변신’은 서로 다른 존재속성을 넘나드는 행위며, 인간 세계와 비인간 세계, 질서화된 세계와 질서화되지 않은 세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도전이다. ‘효자호랑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미분화의 상태를 상징한다. ‘변신’은 질서화되고 분화되기 이전의 카오스(chaos)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성스러운 세계로의 접속을 의미한다.¹¹⁾ 변신 능력의 획득은 비록 주술 도구를

10) 특히 일부 각편에서 효자는, 어머니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간을 먹고 싶어하기 때문에 호랑이로 변신을 시도한다.(위 표에서 2·16·17·25번 작품 참조.)

11) 신화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분화의 상태, 통합된 상태, 카오스(chaos, 혼돈)의 상태

통한 것이라 하더라도¹²⁾ 성(聖)의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변신 주술은 혼돈으로의 회귀와 존재 이행¹³⁾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성스럽고 은밀한 우주의 비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경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경계 자체를 초월해 있다는 점에서, 또한 우주의 비밀을 알거나 획득한 자라는 점에서 효자는 분명 성스러운 존재로서의 표상을 지닌다.

효자가 변신을 감행하는 시간과 공간 역시 성적(聖的) 상징성을 지닌다. 효자는 해질 무렵 변신을 감행해 밤의 시간 동안 호랑이로 살다 새벽녘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낮의 시간 동안 인간으로 살아간다. 공간적으로도 그는 집과 마을 안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다 집을 벗어나 산 속으로 들어가는 호랑이로 살아간다. 이때 집과 마을이 인간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라면 이와 대비되는 집 바깥의 세계, 산속은 성스러운 에너지가 충만한 세계다. 전자가 문명 세계, 후자가 자연 세계를 대표한다면 이때 자연은 인간 질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계 너머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질서화되지 않은, 미분화와 혼돈의 세계를 표상하는 것이다. 호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것처럼 호랑이가 사는 산속은 일반적인 자연이 아니다. 호랑이는 존재속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변신과의 연관 속에 해석되어야

를 성(聖)의 에너지가 가득한 세계로 설명한다. 의례나 신화는 이와 같은 카오스를 코스모스(cosmos)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의례나 신화를 통해 표상되는 혼돈으로의 회귀는 질서화되기 이전 상태로의 복귀, 곧 성적 에너지의 회복과 성적 영역으로의 재접속을 상징한다. 이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질서화를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12) 변신 능력이 기도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다소 속화(俗化)된 형태로의 변이도 나타난다.

13) 성적(聖的) 에너지가 충만한 대표적 사건은 입사식(入社式, initiation), 곧 통과의례다. 통과의례의 핵심 모티프는 죽음의 체험과 재생을 통한 거듭남인데, 이때 핵심 주제가 바로 '존재의 이행'이다. 통과의례는 전 존재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옮겨가는 과정이며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과의례 등의 성적(聖的) 상징은 흔히 이행이나 과도기, 문과 문 사이의 복도나 경계 바깥의 잉여 등의 이미지로 표상된다.

하며 산속은 인간계와의 대비 속에 의미화되어야 한다. 특히 해질녘과 새벽녘이라는 이행기¹⁴⁾는 변신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밤은 혼돈과 불명료함이라는 성(聖)의 이미지를 표상한다.¹⁵⁾

그러나 성(聖)의 에너지와 접촉하던 효자는 변신 주술 도구가 불에 타는 사건 직후에 곧바로 세속적 존재로 몰락한다. 그는 이제 평범한 짐승인 호랑이일 뿐이며, 그가 사는 곳 역시 일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산속일 뿐이다. 더이상 그에게서 이행이나 경계를 넘어선 존재의 징표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죽든, 죽지 않고 목숨을 조금 더 연명하다 산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이미 그의 존재가치는 사라지고 절멸된 상태다. 성스러운 존재로서의 효자는 ‘죽은’ 것이다. 그는 더이상 변신자재자(變身自在者)가 아니며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축출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흉측하고 기괴한 대상, 혹은 지배 대상인 단순한 미물일 뿐이다.

<효자호랑이>의 비극적 논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사건이 ‘변신’과 ‘변신 좌절’이라고 할 때, 서사 전개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은 ‘남성’과 ‘여성’으로 대별되는 ‘효자’와 그 ‘아내’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바로 이 갈등은 ‘효자’와 그 ‘아내’에게 결부된 갖가지 이미지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듯이 ‘성(聖)’과 ‘속(俗)’ 사이의 대립과 긴장을 표상한다. 그런데 성과 속의 이원적인 대비 구도는 성의 상대적 우위 때문에 위계적인 관계

14) 에드먼드 리치는 과도기나 이행기가 표상하는 ‘변화’에 신화적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황혼이나 새벽과 같은 과도기적 시간대나 변태 동물의 이행기적 속성이 신화적 성격을 표상한다는 것이다.(Edmund R. Leach, "Kimil: A category of Andamanese thought", *Structural analysis of oraltradition*, Pierre Maranda and Elli KongPs Maranda eds., Philadelphia: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1, pp.22~48.)

15) 낮의 세계와 집안(마을 안)이 이성과 합리, 인간 질서와 인간계의 가치·규범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밤의 세계와 산속은 이 경계 너머, 바깥의 세계다.

질서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계 질서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표지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聖)’·‘여-속(俗)’의 대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¹⁶⁾

사실상 성·속의 이원적 대비 구도는 신화·주술·종교의 구조에 내재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왔다. 에밀 뒤르켐은 “인류의 사상사 속에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범주만큼 심오하게 구별되고 철저하게 서로 대립되는 사물의 두 범주에 대한 다른 예는 존재하지 않는

16) 특히 ‘호랑이’의 이미지는 ‘남성적인 것’들로 넘쳐난다. 호랑이의 사납고 맹렬하며 권위 넘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이른바 ‘남성성’을 드러내며, 많은 구전서사와 민간신앙, 주술과 속신에서 호랑이는 ‘남성 신격’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찰에 존재하는 산신각(山神閣)의 주인은 호랑이를 대동하거나 호랑이가 변신한 것으로 믿어지는 ‘남성’이며, 민간신앙에서 광범위하게 숭앙되는 산신(山神) 호랑이 역시 대부분 ‘남성적’ 존재로 인식된다.

물론 『삼국유사(三國遺事)』를 통해 전승되는 일부 서사에서 호랑이가 ‘여성’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김현감호(金現感虎)’와 ‘신도정(申屠澄)’ 이야기가 대표적인데(일연(一然),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감통(感通)」 제7, <김현감호(金現感虎)>.), 전자는 여인으로 변신한 호랑이가 한 ‘남성’을 만나 정을 나누었으나 호랑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자신을 희생시켜 그 ‘남성’을 벼슬길에 오르게 하는 내용의 이야기고, 후자는 신도정이라는 ‘남성’과 혼인하여 자식까지 낳고 살던 호랑이 처녀가 일방적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본가(本家) 귀환을 결정한 남편을 원망하며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쓰고 숲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두 이야기는 각각 스스로를 희생하여 인간인 ‘남성’을 성공시키거나 ‘남성’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자신이 살던 세계로의 귀환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서사적 지향을 드러낸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성한 존재로 등장하는 호랑이 ‘여성’이 ‘남성’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세속적 세계로부터 축출되거나 배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서사의 주제가 이 글에서 다루는 비극적 구전서사의 비극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비극적 주제를 부분적으로 환기하기는 하되 ‘남성’의 성공을 위한 신성한 ‘여성’ 존재의 기록하고 아름다운 희생에 초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비탄받아 마땅한 ‘여성’의 배반에 초점을 두고 홀로 남겨진 ‘남성’의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론하기로 한다. 단,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 가운데 구술-연행되는 것으로 조사·보고된 자료는 현재까지 7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달랐을지 모르나 적어도 오늘날에는, 구전 서사에서 ‘여성’ 호랑이보다 ‘남성’ 호랑이가 더 쉽게 발견된다.

다”고 말한 바 있다.¹⁷⁾ 엘리아데도 종교적 구조의 본질에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공존하며 성과 속은 ‘세계 속에 있는 존재의 두 양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¹⁸⁾ 로제 카이유와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 관념 속에는 성과 속에 대한 구별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성과 속을 상호배타적인 동시에 상호보완적이며 서로에 의해서만 정의내릴 수 있는 두 세계로 규정하였다.¹⁹⁾

이들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성과 속의 구분이 질적이며 절대적인 뿐 아니라, 주술·종교·신화의 본질적 요소인 동시에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 고유의 범주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과 속이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두 범주라고 해서 완전하게 단절되어 소통과 교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성과 속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며 소통이나 교류 또한 가능하다.²⁰⁾ 중요한 것은 성이 속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속에 대한 의존성을 드러내긴 하지만 속에 대한 성의 절대적 우위는 예외없는 고유성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신화와 주술, 사회 구조와 각종 문화적 상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인간 사고의 보편적 구조를 발견한 레비스트로스는 이 보편 구조의 핵심으로 이항 대립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슬픈 열대』²¹⁾에서, 브

17) 뒤르켐은 종교적 신앙의 공통적 특성으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체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신앙·신화·교리 등은 결국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표상들이거나 표상체계’일 뿐이며, ‘성과 속’은 단절되어 있는 동시에 상호 의존적이기에 고유한 방식으로만 상호 소통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에밀 뒤르켐,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민영사, 1992, 69~70면.)

18) M.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53~93면.; M.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옮김, 학민사, 1996(2판), 14~15면.

19) 로제 카이유와, 『인간과 聖』, 권은미 옮김, 문학동네, 1996, 21~23면.

20) 성과 속이 서로 이동하는 고유의 방식과 규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례 및 종교의 규칙과 교리라고 할 수 있다.

라질 원주민의 사회 체계와 문화 안에 이항 대립에 근거한 공간 분할 방식이 존재함을 논증하였다. 이때 이항 대립을 이루는 것은 인간과 우주, 사회와 초자연적인 것,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등이다. 주목할 것은 이 이항 대립의 근간에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는 점이다.²²⁾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범주와 연관된 지표가 상반된 차이의 체계나 이항 대립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성과 속의 관계에서 더욱 주도적인 것은 성(聖)이며, 동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성(聖)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계적일 수밖에 없는데 성과 속의 이원 구조가 ‘남성’과 ‘여성’의 젠더 범주에 각각 대응할 때 이 구조는 다시금 차별적인 젠더 체계를 구성해낸다. 성·속의 위계 질서로 인해 ‘남성’ 이미지로 구현된 성(聖)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우위의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이 억압기제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이원 구조, 혹은 이원론적 담론 구조 자체가 하나를 다른 하나의 우위에 배치함으로써 나머지를 배제하거나 추락시키는 권력 효과를 창출하는 셈이다.²³⁾ 결국 존재론이나 인식론에 결부된 성과 속의 이원 구조가 젠더 범주와 만날 때, 이 이원론은 젠더 차이에 기반한 차별적 인식을 정당화함으로써 ‘남성지배’를 옹호하는 권력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²⁴⁾

21) 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 박옥출 옮김, 삼성출판사, 1997(11쇄) 참조.

22) 레비스트로스는 특히 신화 구조 분석을 통해 이항 대립, 곧 상반된 요소들 사이의 대립이야말로 신화 이해의 관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Claude Lévi-Strauss, “The Structural Study of Myth”, trans. C. Jacobson & B. G. Schoepf, *Structural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1963, p.208.)

23)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 새길, 1993 참조.

<호자호랑이>에서 드러나는 성·속의 이원 구조 역시, 모든 이미지들을 양분하여 각각 성과 속에 대응하는 환유적 요소들로 배치하고 이를 다시 ‘남성’과 ‘여성’의 젠더 범주에 대응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자연화·본질화하는 동시에 ‘남성’ 우위의 가치를 각인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위계 구도 상에 우위를 점하는 성(聖)의 이미지들이 이른바 ‘남성성’을 환기하는 요소들로 맥락화되었기 때문이다. 성·속의 구분이 자연적이고 본질적이며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²⁵⁾으로 규정될 때, ‘남성’과 ‘여성’의 젠더 범주로 환원된 성·속의 이원적 대비 구도는 차별적인 젠더 경계를 자연화하는 상징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성과 속의 차이와 대립이 이미지의 환유적 연쇄를 따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대립으로 환원되고 성·속에 전제된 위계적 관계가 ‘남·여’의 젠더 체계에 무의식적·무비판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성·속의 이원론이 젠더 차별 체계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권력 담론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24) 부르디외는 지배 질서나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적 차이를 구별짓고 상징체계를 동원해 이를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것으로 자연화하는 정치적 공모를 상징지배와 상징폭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특정 부족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그가 갈무리한 바에 따르면 ‘남성지배’야말로 이와 같은 상징지배 전략이 관철되는 대표적인 권력기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와 자연, 오른편과 왼편, 위와 아래, 높고 낮음, 끝음과 구부러짐, 밝음과 어둠, 바깥(공적인 것)과 안(사적인 것) 등의 이원적 가치들을 대립 체계에 끼워넣고 이를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에 각각 대응시켜 문화적이고 공적이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징들을 자연스럽게 ‘남성적인 것’에 귀속시킴으로써 ‘남성지배’를 자연화한다는 것이다. (피에르 부르디외, 『남성지배』, 김용숙·주경미 옮김, 동문선, 2000.;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상·하,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참조)

25) 에밀 뒤르켐, 앞의 책, 70~73면.

3. 비극적 결함(하마르티아, *hamartia*)으로 표상된 ‘여성의 죄’

<효자호랑이>에서 효자는 두 세계에 걸친 존재로, 결국 양쪽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기 자리를 갖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두 세계를 오가지만 어디에도 완전히 소속될 수는 없었기에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존재의 절멸뿐이었다. 변신으로 표상된 그의 이중적인 속성 때문에 그는 비극적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술 도구를 얻어 변신 능력을 획득하는 순간 파국은 예정되었지만 그 스스로는 이런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주술 도구를 불태운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중성이 위험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인간 세계로부터 배제되고 축출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변신 능력이 아내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취질지, 인간적인 가치와 규범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재단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변신이 불가능해진 후에 효자는 산속으로 들어가 호랑이로 살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의도하지 않은 변신 장면 노출과 이로 인한 비밀의 발견,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인 주술 도구의 파괴가 이 마지막 파토스를 노정한 비극적 결함(하마르티아)의 핵심 내용이다. 이 가운데 효자에 의한 변신 능력 노출은 서사 전개를 통해 과오로 규정되지 않는 반면, 남편의 변신을 엿보고 주술 도구를 파괴한 아내의 행동은 극단적 파국을 초래한 핵심 과오로 부각된다. 변신 주술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오직 두려움·불안·혐오감 때문에 주저없이 주술 도구를 불태울 정도로 무지하고 맹목적이며 세속적인 아내의 존재속성만이 유일한 결함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더구나 효자가 더 이상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전

까지는, 변신에 주술 도구가 필수적이며 이 도구가 훼손되거나 상실되면 다시는 변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떤 정보도 서사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효자의 아내는 변신에 관한 어떤 금기도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애초에 위반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반 행위의 동기 역시 혐오감과 두려움의 폭발이라는 감정적 반응 외, 다른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는다. 위반의 주체가 금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채 금기를 위반한 셈인데도 위반의 책임은 효자의 아내에게 집중되고, 그녀는 파토스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금기위반자로 규정된다.

또한 <효자호랑이>에서 금기의 존재와 의미는 위반 결과를 통해 비로소 가시화된다. 파토스 단계에 이르러서야 금기를 비롯한 비극적 인과율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극적 서스펜스(suspense)는 비극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파토스의 충격을 배가시킨다. 그리고 이 충격을 경험하는 순간 비로소 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비극적 파국을 초래한 필연적 논리의 핵심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시작된다. 비극적 서스펜스가 파토스의 원인 규명과 인과 논리 탐색을 마지막 단계까지 지연시킨 셈이다. 이와 같은 지연은 강렬한 인상을 자아내는 파토스 바로 앞에 배치된 특정 행위를 파토스의 원인에 해당하는 결정적 과오로 규정하게 만든다. 마지막 순간에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초래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작동시킴으로써, 생각할 겨를 없이 곧바로 ‘그녀의 행동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비극적 서스펜스의 효과²⁶⁾는 파국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효자의 아내

26) 흔히 비극적 서스펜스의 특징은 ‘스토리 전개를 따라 도입부에서 제기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해결이 지연된 채로 마지막까지 문제 상황이 지속되는’ 데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이와 같은 지연 때문에 문제적 상황이나 문제 자체의 의미가 강조되고, 문제 해결이나 결핍 상황 해소라는 결과보다 과정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비극적 서사에서는 서스펜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제

에게 전가하면서 그녀의 행위를 비극적 필연성 내 ‘하마르티아’로 확정짓는다.

세속적이며 일상적인 존재인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의 변신은 말 그대로 기괴하고 공포스런 사건일 뿐이다.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이 자신의 사고와 인식 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전율한다. 그는 이미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동질성에서 벗어난 존재, 일상의 안정을 지탱하는 정상성의 범주를 저만치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징그럽다’는 말로 표현되는 아내의 혐오 내지는 공포는 남편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곧바로 변신 주물(呪物)을 불태우는 행동에 돌입하게 만든다. 그녀는 비극적 주인공들이 으레 그러하듯이 마치 다른 모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경직된 태도로 파토스를 향해 돌진한다. 일부 연행자들은 그녀가 남편의 효행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그녀는 남편의 동기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효의 실천으로 해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며 효의 가치를 의문시하거나 효행의 의미를 질문하지도 않았다. 아내의 극단적 행동은 이기적인 선택이나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과오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 한계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결핍일 뿐이다.

무엇보다 그녀의 한계는 효자의 한계이기도 하며, 주술 도구를 불태운

공하지 않기도 한다. 서사 전개상 핵심적인 정보가 의도적으로 은폐될 때 텍스트 향유자는 비밀로 가려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가리워진 텍스트, 은폐된 논리가 탐색을 부추기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미케 발은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조작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성분을 제외하거나 독자가 보지 못하도록 숨김으로써 이미지를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케 발, 『서사란 무엇인가』, 한용환·강덕화 옮김, 문예출판사, 1999, 207~208면.)

위반 행위의 원인 역시 근원을 파고들수록 그녀가 아닌 그의 몫으로 드러난다. 애초에 효자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의 변신은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변신 능력의 노출, 곧 변신을 둘러싼 비밀의 발견 역시 그녀에 의해 자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근원적으로는 두 세계를 넘나드는 남편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변신 능력이라는 성(聖)의 에너지가 그의 몫이 아니었다라면 아내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적 상황 또한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변신은 세속 질서 내에 편입될 수 없는 사건이며 변신자재자는 인간 세계에서 승인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²⁷⁾ 비극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효자의 이중적인 존재속성과 변신 그 자체에 있다.

더구나 효자는 성(聖)의 에너지에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후에도 ‘부부(夫婦)’라는 인간적 관계에 얽매인, ‘남편’이라는 역할 속의 존재로 남아 있다. 성(聖)의 비밀을 안은 채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속적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생(生)을 영위해나가려 한 것이다.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욕망이기에 그는 존재하면서도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승인받을 수 없는 비존재(非存在), 곧 경계 너머의 존재-사이에 낀 존재, 잉여의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조심하지 않으면서 거리낌없이 변신을 계속해나간다. 따라서 그의 변신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비밀이었으며, 이 비밀이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 의해 발견되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효자의 아내는 어떤 의도를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변신에 관한 비밀을 ‘적극적’으로 밝혀낸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수동적’

27) 변신(變身)처럼, 성(聖)의 에너지에 접촉하는 사건은 인간에게 양가적(兩價的)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초월적이고 위력적인 성(聖)의 에너지는 한계 투성이인 인간에게 영원히 무한한 동경과 숭배의 대상인 동시에 극단적인 배척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제되지 않은 성(聖)이 인간의 안정된 질서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기인한다.

으로 목격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뿐이다. 주목할 것은 변신을 목격하고 주술 도구를 불태운 아내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이중적인 존재성을 지닌 효자에게 예정된 운명은 파멸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서사와 연행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이중적인 존재성과 변신 능력의 획득이라는 효자의 결함은 지워지고 주술 도구를 불태운 아내의 행동만이 파토스를 이끌어낸 ‘하마르티아’로 남는다.

인간이면서 동물인 존재가 이중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면, 효자호랑이의 변신 불가는 오히려 당연한 사태로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아내가 아니더라도 효자의 미래는 파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적 존재인 아내에게 남편의 변신을 중단시킨 일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일 뿐 아니라, 인간이기에 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적인 일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내의 행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곧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 인간 존재에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한 긍정적 성취가 된다. 효자의 아내가 혼란을 정돈하고 질서를 새로이 정비하는 일, 경계를 다시 세워 현존재와 현 질서를 안정시키는 일을 해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하마르티아’를 영웅적 위반 행위로 해석하는 비극 이론의 전통 안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비극 이론가들은 ‘하마르티아’를 구성하는 금기위반을 신에 대한 인간의 도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도전의 결과, 신에게서 독립한 인간 존재와 세계 질서가 구현되었다는 것이다. 인간 주체의 자기 성찰 앞에 그의 현 존재와 질서는 언제든지 한계와 오점 투성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기에 인간의 도전은 스스로의 결핍을 초래한 비극적 과오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자기 한계에 직면하려는 인간의 반성적 서사가 싹트는 것이다. 비극은 인간이 스스로의 과오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서사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 운명을 대

리하는 비극적 주인공은 ‘우주의 질서를 더럽힌 자’가 되며, 그의 행동은 ‘신이 지배하는 우주 질서를 더럽힌 행위’로 간주된다.²⁸⁾

인간의 자기 인식이 자존감의 추락으로 현존(現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극단을 향해 치달을 때 비극적 서사는 죄의식으로 점철된다. 존재론적 자기 성찰의 서사가 신에 대한 도전을 고백하는,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서사가 되는 것이다. 이때 비극적 주인공의 금기 위반은 인간의 무지나 오만²⁹⁾에서 비롯된 과오로 규정되며 이 과오는 단순한 실수나 필연적 결핍을 넘어선 ‘죄’로 서술된다. 비록 “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 결핍이 있을 뿐”³⁰⁾이라 하며 항변할지라도, 한계와 모순으로 가득찬 자신의 현존에 대한 인간의 탄식과 비극적 인식이 지속되는 한 비극적 서사는 인간의 존재론적 ‘죄’에 대한 자기고백적 서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도전이 신에게서 독립하려는 인간 주체의 자기 정립을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이해되거나, 인간의 자기 인식이 스스로의 현존에 대한 긍정으로 나아갈 때 ‘위반’은 인간 의지의 위대한 실현으로 재기술된다. 존재론적 한계와 결핍을 성찰하고 고백하기 위해 ‘죄’로 규정되었던 위반 행위가, 문화 창달과 역사적 도전을 설명하는 영웅적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다.³¹⁾ 비극적 서사를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파토스는 ‘승리에

28) 임철규, 『그리스 비극-인간과 역사에 바치는 애도의 노래』, 한길사, 2007, 360면 참조.

29) 임철규는 “죽을 운명인 인간이 자신의 운명적인 조건을 망각한 채, 신의 속성을 얻으려 하고, 신과 경쟁하려 하며, 지나친 자만심을 드러내는 행위나 말, 심지어 그러한 생각이 오만”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오만’이 위반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임철규, 앞의 책, 35면.)

30) 프리드리히 니체, 『유고(1870년~1873년) 디오니소스적 세계관·비극적 사유의 탄생 외』(니체 전집 3), 이진우 옮김, 책세상, 2001, 77면.

31) 이렇게 해서 위반은 창조를 향한 능동적인 자유의지의 실현, 혹은 세계에 대한 ‘삶’의 확대와 자연의 비밀을 탈은폐시키는 인식 활동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찬 패배³²⁾가 되며, 하마르티아는 ‘죄’가 아닌, 위업을 향한 도전적 성취가 된다. <효자호랑이>의 금기위반 역시 이처럼 해석될 수 있다면, 아내의 ‘죄’ 또한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재맥락화될 수 있는 구성적인 대상, 곧 ‘만들어진 죄’가 된다. 그녀에게 씌워진 ‘죄’의 혐의를 벗겨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마련되는 것이다.

<효자호랑이>의 서사와 연행에서 시종일관 초점화되는 되는 것은 ‘효’가 아니라 ‘변신’이다. ‘변신’이라는 사건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기능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간의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에서 핵심 갈등이 싹튼다. ‘변신’은 존재속성을 바꾸는 일이며 한 존재가 몸담고 있는 세계, 곧 그가 속한 영역과 경계를 이탈하고 이동하는 일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성적(聖的) 에너지다. 따라서 ‘변신’은 성(聖)의 영역에 접촉하는 일이며 성(聖)의 에너지를 세속적 질서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변신’이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물고 ‘성’에 대한 ‘속’의 규범과 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신’은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인간에게는 ‘성’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는 매혹적인 일인 동시에 자기 존재의 기반을 허무는 위험천만한 도전이다. ‘성’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그러하듯이 ‘변신’은 인간에게 양가적(兩價的)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편의 변신을 목격한 효자 아내의 반응은 성(聖)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 감정과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녀는 특히 ‘성’의 에너지에 접촉하는 순간 공포와 불안, 극단적인 혐오의 감정에 휩싸이는데 이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다. 변신에 몰입하는 효자와 변신을 혐오하

32) 프리드리히 니체, 『유고(1869년 가을~1872년 가을)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에 대하여 외』(니체 전집 4), 최상욱 옮김, 책세상, 2001, 248면.

는 아내가 ‘성’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 태도를 각각 대리 표상하는 셈이다. 효자의 변신은 ‘성’과 ‘속’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질서와 규범이 불안정하게 동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효자의 아내가 드러내는 공포와 혐오는 바로 이 불안정한 경계와 동요하는 질서에 대한 인간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아내의 금기위반은 이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 ‘속’의 재분리와 재질서화, 관계 규범 정립 및 경계 설정을 도모하는 인간의 노력을 대리 표상한다. 세속적 세계에 돌연히 끼어든 성적(聖的) 에너지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언제나 위협적인 대상이다. 또한 ‘성’에 대한 동경과 배척 사이를 오가는 심리적 동요 역시 인간에게는 버거운 긴장과 불안을 유발한다. 따라서 ‘속’에 개입한 ‘성’을 배제하거나 축출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존재론적 당위다. ‘성’과 ‘속’ 사이의 관계 질서와 규범이 무너지면 인간은 자기 존재의 기반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의 소환, 더 광범위하게는 ‘성’과의 소통과 교류를 세속적 질서의 틀 내에서 주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 ‘성’과 ‘속’은 태초의 분리 이후에도 완전히 단절될 수 없기에 이를 인식하는 인간은 ‘성’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관계 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속’에 대한 ‘성’의 상대적 우위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서화가 완전히 성취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더구나 인간은 좌절할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시도를 멈출 수 없기에 질서화의 과업은 인간 주체에게 다분히 억압적인 당위다. 따라서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변신’은 일종의 신경증을 유발하는 사건이지 않을 수 없다. ‘성’과 ‘속’의 관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완전한 성취를 벗어나고, ‘성’과 ‘속’은 또다시 의도와 바람을 비껴나 불안정한 상태에 도달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 ‘속’의 경계를 세우는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릴 수록 인간은 점점 더 결핍과 우울의 주체가 되어간다. 효자의 아내는 이 모든 억압과 불안을 대리 배설하는 대상이면서 강박적 우울을 회피하고 방어하기 위해 동원된 존재인 것이다.

4. <효자호랑이>의 연행과 젠더화된 주체의 생산

지금까지 조사·보고된 <효자호랑이>의 연행자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남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웃어른으로 존경받으면서 이야기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효자호랑이>의 연행 조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몇몇 연행자의 사례를 뽑아 사회적 지위, 이주 경험과 교육 정도, 조사자에 대한 태도와 연행 동기, 집단 연행 및 연행 유도 여부, 전체 연행 작품의 목록 등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³³⁾

자료 번호	이야기 제목	집단 연행 여부	연행 유도 여부	사회적 지위	연행특질	레퍼토리
1	둔갑법으로 호랑이가 된 채 죽은 사람	집단	유도	도박이로서 마을에서 학자로 통함. 양반이라는 자긍심. 서예 잘 하고 서당 교육 받음. 보통학교 졸업.	소개 받음. 연행 능력 탁월. 기억력 좋음. 혼자 이야기 연행 계속 이어감. 조사자가 전설이나 고담을 청하자 고장 전설 이야기로 연행 시작. 한자어 많이 사용. ‘점을 쳐 효험이	중국 명유를 놀래킨 성삼문의 시, 둔갑법으로 호랑이가 된 채 죽은 사람, 장병사 말 타던 ‘말바탕’, 영동의 별명 계산의 유래, 묘자리 훔쳐 감사가 되었다가 망한 이야기, 고시네의 유래, 남 일은 알고 제 일은 모르는 소강절, 점장이를 속인 소강절, 생각지도 못한 아들 찾아준

33) 아래 표에 기술된 작품의 제목과 번호는 앞서 제시한 표의 내용과 동일하며 레퍼토리 목록 내 ‘()’ 안의 인물은 다른 연행자를, ‘...’ 표시는 누군가 연행에 끼어든 상황을 가리킨다.

				서기 근무.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에 관심. 항상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라는 말로 연행 마무리.	점괘, 죽을 사람 두 번 살린 점괘, 소금장수 아버지 찾은 어린 서기(정원길), 지리산을 귀양 보낸 이성계, 박문수와 밥상으로 문답한 처녀, 산신의 도움으로 금제한 휴암, 점장이 이들을 구해준 유척기, 천자문 배워 문장을 쓴 재동, 예를 모르는 조상의 제사, 양연의 조갑천장, 왕비 병 고친 엉터리 의원
2	호랑이 황팔도	두 사람 연행.		정보제공자의 소개를 받음.	이름난 이야기꾼. 동네 사정에 밝음. 목소리 힘차고 기억력 좋음. 다른 사람 연행 시 끼어들어 수정·보충함.	호랑이 황팔도, 삼똥이, 구물레 구장군, 문달음, 정조와 율학림, 쌀 나오는 바위, 부처님과 과거(유규환), 김복선, 송시열과 회수분, 이토정과 묘자리, 홍선군과 묘자리, 서고청, 자귀한다, 걱정없는 사람
5	효자 황팔도	집단		농사꾼 4대째 거주. 서당 다님.	이야기꾼. 활발한 연행. 모두 아는 이야기. 전설과 역사담 즐겨 연행.	이성계의 산신제 치성, 박씨 효자문 전설, 효자 황팔도, 이몽학 이야기, 금계포탄 명당과 한산 이씨
8	황효자 황호랭이	집단	유도	교장 출신. 토박이.	사랑방에서 연행. 마을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	불공 덕에 복 받은 사람, 동생과의 내기에서 겨준 이몽학의 누이, 장수 전설, 소강철 선생의 점술, 황효자 황호랭이

<효자호랑이>의 연행자들 중에는 노래보다 이야기를 잘 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레퍼토리에는 이른바 '전설'류의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마을 역사나 각종 지형·지명의 유래에 얽힌 이야기, 과거에 지역 공동체 내에서 주요 권력을 행사했던 이름난 가문에 얽힌 이야기,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 충이나 효를 실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편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다.³⁴⁾ 또한 상대적으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토박이 의식이

34) 이들 가운데는 마을 당제를 주관하거나 수차례 마을 이장을 역임하는 등 공동체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많다.

강한 편이며 자신이 연행하는 이야기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이들은 이야기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나 연행에 대한 사명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집안이나 마을의 웃어른에게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많다. 전승 역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형성된 이들의 연행 동기는, 대체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주요 지식과 정보,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규범을 전수하는 데 있다.

이들처럼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있고 반복적인 연행을 통해 패턴화된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보유한 연행자들은 공동체의 신참자들에게 집단적 가치를 전수·교육하여 이들의 사회입문을 돕는 이야기꾼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공동체의 어른’으로 통하는 이들 이야기꾼은 전통 보존과 공동체 유지에 기여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안고 연행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레퍼토리는 마을 지형 및 마을 의례 대상 신들의 유래, 그리고 처음 마을에 정착한 조상들이나 역사에 흔적을 남긴 마을 인물들에 얽힌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가치를 암시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져나간다.

주목할 것은 연행자들 가운데 ‘공동체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남성’이 많고 이들이 참여하는 연행현장 또한 ‘남성’들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효자호랑이>와 같은 비극적 서사의 연행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들 서사는 ‘남성’ 어른-아이의 일대일 관계나 ‘남성’ 집단 내에서 연행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의 가치 전수 역할을 하는 이야기의 연행이 ‘남성’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체에 입문하여 이를 유지·발전시켜야 할 임무를 띤 것으로 기대되는 주체 역시 ‘남성’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이야기의 연행을 통해 호명(interpellation)³⁵⁾되고 형성되는 주

35) ‘호명(interpellation)’은 알튀세에 의해,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주체로 부르거나 주체

체는 다름 아닌 ‘남성’인 것이다.

<효자호랑이> 연행의 이와 같은 자질은 비극적 서사의 역사성 안에서
도 확인된다. 그리스 비극의 모태가 되었던 디오닉소스 제전은 ‘남근숭배’
와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다른 비극의 형성 모
태였던 사튀로스극 역시 남성적인 내용과 음담패설에 가까운 남성적 언
어 표현으로 구성된, 남성 시민을 위한 극이었던 것으로 전한다.³⁶⁾ 그리
스 비극의 배우와 코러스가 모두 남자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 비극의 존재
이유가 남성 시민들로 구성된 폴리스의 결속과 정치력 강화에 있었다는
주장³⁷⁾이나, “위대한 비극적 인물들의 전형은 그 당시 위대한 남성들”³⁸⁾
이었다는 지적은 비극적 서사의 연행이 비극 양식의 태동 단계에서부터
‘남성’ 주체의 형성에 일정하게 기여해왔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비극 이론가들은 비극적 서사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남성’ 중
심의 타자화 전략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임철규는 그리스 비극이 이방인,
여성, 노예, 재유외인 등 아테나이 남성 시민과 대립되는 타자들을 ‘야만

인 개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정식화된 바 있다. 주체가 이데올로기의 구성 범주
로 기능하는 방식인 동시에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주체로 구성해내는 방식이 ‘호명’인
것이다. 알튀세는 ‘호명’이 단지 부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부름을 받은 자의 순
응과 응답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였다.(루이 알튀세, 『레닌과 철학』, 이진수
옮김, 도서출판 백의, 1991, 175~178면 참조; 데이비드 맥켈런, 『이데올로기』, 구승회
옮김, 이후, 2002, 61면.)

36) 김상봉,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한길사, 2003, 165~166면·324~325면·330~
331면 참조. 김상봉은 그리스 비극의 창작 동기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상적인 시
민의 형상을 그려냄으로써 시민들을 폴리스 공동체의 주인으로 교육하는 데 있었다
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37) 아놀드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고대·중세편』, 백낙청 옮김, 창작과비평사,
1976, 96~106면 참조. 하우저는 비극 시인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조달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국가의 정책이나 지배계급의 이해에 합치되는 비극
작품만이 공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8)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50면.

인'으로 규정하거나 공동체의 중심에서 배제하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비극이 이와 같은 타자화 논리에 기초함으로써 아테나이의 민주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정립·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일종의 '신화'를 아테나이 시민들에게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언급하였다.³⁹⁾ 이런 맥락에서 비극적 서사는 '개인을 사회적 총체에 복종시켜 공동체적 삶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식(儀式)'으로 정의되기도 한다.⁴⁰⁾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이 집단적 통합과 동질화에 기여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효과는 독특한 연행 구도와 양식화된 연행 방식을 통해 더욱 증폭된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연행은 크게 일대일의 대화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연행과 암묵적으로 합의된 특정 조건에 따라 구성된 연행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연행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연장자가 성장 과정 중의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연행 구도가 다분히 수직적이다. 간혹 일대일(一對一)이 아닌, 일대다(一對多)의 구도 속에서 연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서당이나 사랑방 같은 곳에서 마을 어른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연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행은 연행 공동체의 급속한 해체에 따라 흔적만을

39) 임철규, 앞의 책, 46~50면 참조. 임철규는 그리스 비극 속의 여성이 오로지 남성 시민과 남성 상속인을 생산하는, 가족과 폴리스의 번식을 위한 도구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임철규, 앞의 책, 90~91면.) 그는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에서 특히 여성 원리에 대한 남성 원리의 승리, 성적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남성중심주의나 여성의 타자화 등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임철규, 앞의 책, 157~163면 참조.)

40) 테리 이글턴, 『우리 시대의 비극론』, 이현석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126면. 이글턴은 비극적 서사에서 '무서운 타자를 악마처럼 그려서 단결을 도모하는 수법'이 드러나며 이때 타자는 '우리를 부정하려는 낯선 집단'으로 그려진다고 하였다. 이 낯선 집단에게 '우리의 세계를 혼란스럽고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혐의를 씌우고, 이 혐의를 바탕으로 배제와 거부를 정당화하며, 배제와 거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테리 이글턴, 위의 책, 441~444면.)

남긴 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보다 더 활성화된 연행 방식은 특정 조건에 따라 구성된 집단 내에서의 연행이다. 이들 집단은 표면적으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우연적인 집단이 아니다. 이들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연행자들은 일생 동안은 물론, 누대에 걸쳐 같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일상 생활을 공유해 온 사람들이다. 연행집단의 구성 방식 자체가 특정 형태로 굳어지고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마치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되지 않고, ‘남’·‘여’의 젠더 지표나 나이·계층, 소속 가문 간의 상호 권력 관계, 지역 공동체 내 사회적 지위,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적인 친소(親疎) 관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집단을 형성한다. 다양한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연행집단을 형성하여 각기 다른 연행 전통을 만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공동 생활을 매개로 반복적 연행을 수행하면서 점차 특정 조건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연행집단을 구성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수직적 연행 구도는 구전서사 연행의 입사적 성격을 짐작케 하는 반면, 수평적 연행 구도는 집단적 향유의 효과에 다시금 주목하게 만든다. 수직적 연행 구도는 사회입문을 이끌어가는 집단 내 연장자, 혹은 지도적 위치의 주관자가 사회입문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입문 예비자에게 규범의 내면화 및 집단적 동질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설득하거나 강제해내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와 같은 구도의 연행은 개별자에 대한 일대일 교화와 훈육을 통해 집단적 가치로의 동화와 사회 통합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수평적 구도의 연행은 이처럼 직접적인 방식으로 입사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수평적 구도 하의 연행은 동질화 기준에 어긋나는 요소를 개별 주체가 스스로 거세하는,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벌다

른 저항 없이 ‘동화’와 ‘통합’의 목표를 성취한다. 개인은 수평적 연행을 통해 집단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집단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동질화의 노력을 계속하게 된다. 집단에서 거부될 경우 개인은 극도의 사회적 고립과 생활 세계의 상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존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정서적 공감대와 친밀감을 토대로, 지역과 가문의 역사·자연적 기반과 문화적 관습·기억과 경험·공통의 사회적 조건들을 공유한 지역 공동체 내 소규모 집단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사회화의 통로이자 사회적 통제 영역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이들 집단은 상호 의존적이고 관여적인 관계에 기초할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매개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 영역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비극적 서사의 전승이 사회입문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 수행을 통해 공동체적 ‘주체’를 생산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유지·재생산에 기여한다고 할 때 이러한 과정은 모두 ‘연행’을 매개로 한다. 비극적 서사를 일종의 매체로 인식하면, 이 매체는 단순히 도구적인 존재를 넘어 개별 주체의 인식과 지각 방식을 변화시켜 문화와 사회적 소통방식 자체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능동적 힘을 발휘한다.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과 전승이 공동체가 개인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훈육하는 동시에, 개인의 식과 사회적 기억 및 경험의 장을 연결하는 사회적 코드화⁴¹⁾ 기제로 기능

41) “문화나 풍속을 구성하는 경험은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경험은 사회구조와 개인의식을 연결해주는 것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사회적 코드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종략...매체는 그 시작에 있어서는 매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지만, 매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다 보면 스스로 새로운 문화를 구성하는 능동성을 보이게 된다. 매체가 경험을 인식의 층위로 전화시키는 매개로 작동하는 한편, 나아가 경험자의 지각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문화 구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김기란, 『한국 근대 계몽기 신연극 형성 과정 연구-연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1면.)

하는 것이다.

<효자호랑이>의 연행이 연행에 참여한 개별 주체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때 이는 곧 사회적 주체를 형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는 이를 ‘주체화(종속화, subjectiv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주체되기’의 과정이 권력에 자발적으로 종속되는 예속화(*assujettissement*)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이를 ‘주체화’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⁴²⁾ ‘주체화’의 개념을 전유할 때 ‘여성의 죄’를 서술하는 구전서사의 연행은 특정 내용으로 젠더화된 주체(*the gendered subject*)를 생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의 죄’를 풀어내는 이야기의 연행은 연행 주체의 의식에 젠더와 연관된 특수한 내용의 정체성을 이식하거나 교육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정 젠더로 호명된 주체를 구성하는 담론적 모형(模型, *matrix*)인 동시에 젠더화된 주체를 생산하고 훈육하는 권력 기제로 작용한다. 이때 이야기 연행은 특정 내용의 젠더 정체성을 기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는 과정이 된다. ‘수행’으로서의 이야기 연행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주체가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 속에서 ‘여성의 죄’는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젠더 규범에 따라 구성된 정체성 시나리오의 핵을 구성한다.⁴³⁾

42) 푸코는 종속되지 않고서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주체화’의 역설적 의미를, “사람은 오로지 근본적인 의존을 의미하는 종속, 곧 권력에 종속되는 것에 의해서만 자아의 형상에 깃들 수 있다”는 말로 정식화하였다.(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1994 참조.)

43) 주체화 과정을 권력에 의한 외적 규제에 국한하지 않고 육체를 형성하고 생산하는 담론의 작용으로 해석한 푸코는, 특히 주체가 담론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통해 정식화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젠더 주체를 형성하는 핵심 기제 가운데 하나가 젠더 정체성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을 가변적이고 구성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일종의 ‘시나리오’로 파악할 때, 주체화 과정은 정체성을 지시하는 ‘시나리오’를 연행을

<효자호랑이>의 연행이 젠더 경계 및 규범의 내용을 실어나르는 ‘표준화(normalization)’ 기제로 작동하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화된 주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할 때 이 연행을 통해 수행되는 정체성의 내용은 ‘남성’의 의지가 ‘여성’의 과오로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효자호랑이>에서 ‘여성’에 의해 좌절된 ‘남성’의 변신은 효행(孝行)의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여성’의 과오는 비윤리적인 ‘죄’가 된다. 그러나 변신은 필연적으로 파멸에 이르는 길이며 변신을 향한 욕망은 금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남성’의 효행(孝行)은 부자연스럽고 강박적인 행동에 가깝다. 따라서 호랑이로의 변신을 마다하지 않은 효자의 행동과 변신 능력 상실은, 부모-자식 사이를 규정한 가부장적 질서와 효의 가치가 ‘남성’ 주체에게도 불편하고 억압적인 조건임을 암시한다. 결국 ‘남성’ 주체는 이 억압을 회피하고 방어할 기제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강박적 부담과 무의식적 부정(否定)에서 비롯된 죄의식을 대리할 ‘죄 지은 여성’의 시나리오가 요청되는 것이다.

‘죄’와 ‘죄에 대한 감정’을 대신 짊어질, 도구적 존재로 ‘여성’을 소환하지 않는 한 ‘남성’ 주체는 성공적으로 사회에 입문할 수 없다. ‘남성’ 주체는 그를 위협에 빠뜨리거나 좌절시키는 경솔한 ‘여성’, 그의 윤리적 실천을 가로막는 부도덕한 ‘여성’, 그에게 잠재된 신성한 능력을 상실케 하는 세속적 ‘여성’의 이미지 없이는 종속화의 압박을 이겨내고 ‘주체되기’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죄 지은 여성’은 ‘남성’ 주체의 사회입문을 위해 도구화·타자화된 이미지면서 동시에 ‘남성 주체’가 주체화 과정에서 깊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은 자신의 한계와 과오를 넘겨받을 ‘여성’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표준화의 압력과 예속화의 억압을 견뎌내고 주체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 ‘남

통해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표준화된 대상으로 거듭나는 훈육 과정이 된다.

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여성'과, 자신의 과오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도 여전히 결핍된 존재로 남은 '남성'의 각기 다른 시나리오가 젠더화된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

5. 젠더화 기획에의 공모와 탈주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는 예부터 다양한 내용으로 전승되어왔는데, 특히 그중에는 호랑이가 효자(孝子)·효부(孝婦)를 돕는 이야기가 많다. 이들 이야기에서는 초점화된 주체가 '효(孝)'이며, 이때 호랑이는 '효'의 이념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수호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그런데 <효자호랑이>에서는 서사적인 관심이 '효'보다는 '변신'에 있다. 인간과 동물, 문명과 자연, 현실계와 초월계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며 단절되었던 두 세계가 소통하는 사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연행을 통해 초점화되는 것 또한 '효'를 행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느냐 하는 것보다 변신을 감행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금기가 어떻게 위반되고 그 위반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따라 '효'의 이념을 실천하는 '효자'의 선택과 희생보다 남편이 호랑이로 변신하는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한 아내의 위반 행위와 행위 동기가 더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래 2·4·5·24번 작품에서도 효자가 호랑이로의 변신을 감행하게 된 동기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는 동기가 간략하게나마 제시되는 2번 자료에서도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이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는 효자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이 자료에서 강조되는 것은 책을 불태운 부인의 동기와 부인의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다.

자료 2번> “...전략...그 마누라가 부인이 개 잡아와 와서라무네, 호랭이가 개 잡아 와서라무네 으르릉대는 게 천하 뵈기 싫고 뵈서워서 주문을 갖다가 불이 붙싸질렀네 [말끝을 올린다] 책을. 책을 붙싸질렀는디 이, 사람이 됐을 때 붙싸질렀으면 괜찮을 건디 호랭이 된 뒤 책을 붙싸질렀다 그런 말이여. 그러인께 그 남편이 호랭이 되가지구서라무네 주문을 외서 호랭이루 영영 되구 말았네. [말끝을 높인다] 그래서 호랭이 됐는디 하 하룻 저녁에 여덟 도를 땡겨.”⁴⁴⁾

4번 작품에서도 변신을 도모한 효자의 동기는 상세하게 서술되지 않는다. 이 자료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변신을 목격하고 금기를 위반하여 영영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강조될 뿐이다. 5번 자료의 연행자 역시 ‘황팔도’가 효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변신 동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위반의 동기와 위반 행위, 그리고 위반의 결과다.

자료 4번> “...전략...자기 마누라가, 사철 뵈 돼가지구 땡겼싸쿠 그래 하 아두 뵈기 싫으닝께 책을 갖다 아궁이 갖다 붙싸질러 버렸네? 그 책 워따 뵈느냐구 막 할라치면 뵈이 막 꺾 질르는 소리란 말여. 자기 마누라가 하는 말이, [짜증스럽게] ‘사철 그 뵈 돼가지구서 땡겼싸킬래 아궁이다 갖다 불태 왔다’구...전략...그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사람이 그 참 자기 어머니를 고친다는 고쳤다는 이름두 있을 게며....., 할겐디 자기 어머니 때 미구만.”⁴⁵⁾

자료 5번> “...전략...아 그 가만히 보닝개 무서워 못살격거던? [청중: 날 마두 그러닝개?] 응. 그러닝개 그 황팔도 부인이 ‘에 이눔으 책 때미 그렇다’

44) 『대계』 4-1, 405~406면.

45) 『대계』 4-4, 604~607면.

구. 그놈을 들어온 뒤에 불살랐으면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데, 호랑이 돼서 나간 뒤에 불살랐네? 이걸. [청중: 나간 뒤 아궁지에 갖다 처냈더라.] 응. 그러니 인저 누렁개 자지를 참 구해 각구 와 보닝께 그 책문을 읽 읽 읽으야 도루 사람이 되는데. [청중: 주문을 외야 그케 되는데.] 응. 책이 있어야지? 그래 응 호랑이가 떨 거여. [청중: 그래서 자기 부인을 찢어발기구서.] 응. [청중: 여자만 보기만 보면 하이튼 여자는 다 그저…….] 가만 있어. 내 얘기 끝지결랑 해야지……. [청중: 웃음] 그 쓰겼소. 사람이? 녀미 증등을 꺾어두 유만부득이지.……후략……”⁴⁶⁾

자료 24번> “…전략…겹이 나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으니깐 마루에 뭘 갖다 놓는 소리가 ‘쿵’ 나요. 호랑이가 방에 들어오거든. 들어와서 뭘 보고 나가 더니만 아, 남편이 사람이 돼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 이 여자가 지각이 있었으면 알텐데. 또 한 달 대접을 하고 난 후 없어져 떨어질만 하니깐 이 사람이 또 둔갑을 해 가지구 또 호랑이가 되려고 하는데 어, 이 여자가 저걸 뇌똥다 하면은 책을 자꾸 들여다보니 저 책을 없애야 호랑이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⁴⁷⁾

위 24번 작품에서도 주인공 ‘정효자’가 변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동기, 선택의 과정 등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강조되는 것은 남편의 변신을 엿보는 효자 아내의 행동과 감정, 그녀가 변신 주술 관련 책을 불태우는 이유, 그리고 금기위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효자호랑이>가 표면적으로 ‘효자’ 이야기를 다루는 형식을 띠긴 해도 연행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효자’로서의 희생과 실천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행 특징은 상반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한편으로 금기를

46) 『대계』 4-5, 233~235면.

47) 최용·김용구·함복희, 『강원설화총람』 4, 북스힐, 2006, 254면.

위반한 아내의 행동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아내의 과오를 더욱 맹렬하게 추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효자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남편의 동기보다 아내의 동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만들 수 있다. 아내에게 공감하기보다는 그녀의 ‘죄’를 힐난하는 의도가 더욱 강하게 연행에 개입할 때, 연행자들의 논평은 아내의 위반 행위에 집중된다. 이런 경우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한 ‘효자호랑이’의 상황은 더욱 안타깝게 그려지고, 아내의 ‘죄’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아래 10번 작품의 연행자는 ‘득배를 잘못해서’라는 말로 연행을 시작하면서 훨씬 더 노골적으로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연행 중간과 말미에 ‘득배를 잘못해서 결국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을 반복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의 연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를 잘못 얻어 패가망신한 효자’라는 해석적 틀에 견인되고 있다. 이야기 마지막에 아내의 행동으로 어머니가 죽고 호랑이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장면이 서술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자료 10번> “황씨가 모재 살어. 그런데 득배를 잘못했음으로써, 아마 츠지가 어렵다 보닝개 참 어려운, 규수를 아마 득배를 했었던 모냥여. 그러나 효심이 워는 지극한데...중략...그러닝개 시봉을, 그 사람으 부인 노릇을 허기가 무서워서 그 책을 없일라구 맘얼 먹어. 그러나 이 황호랑은 그 책을 안 뵈게 감춘다능 것이 어찌다가 그 여인에게 들켜 버려거든...중략...그러구 보닝개, 그, 득배 잘못 하면은 그렇게 앞질을 막구 집안을 아주 당, 아주 폭 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여. 인제 고겨여.”⁴⁸⁾

아래 28번 자료의 연행자는 연행하는 내내 조사자가 ‘여성’이라는 사실

48) 『대계』 4-6, 340~343면.

에 유의하였다. 그는 조사자에게 어떤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 연행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행 말미에 그는 진지한 태도로 조사자를 훈계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을 때 어떤 몸가짐으로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조사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자 연행자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같은 내용의 발화를 계속하였다. 이는 <효자호랑이>의 연행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 일정 내용의 젠더 정체성을 지시하고 젠더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 양식을 교육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과오를 범할지도 모르는 존재’, ‘남성을 과멸시킬 수 있는 존재’, ‘경솔하게 행동하기 쉬운 존재’라는 정체성의 시나리오가 ‘여성’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이다.

자료 28번> “...전락...저 인자, 삶아 드리니께네 수상해, 뒤에 인자 수사를 헨 기라. 뒤를 밟으이, 한날 저녁에 밤중-되이께 말이요, 헛방을 드가가 주구 책을 일, 내놓고 졸졸졸 일으니까네 자기 영감이, 뒤 신랭이라 할까 영감이라 할까 말이요, 사람이 마, 천금대호가 돼가 휘떡 날라가뿌는 기라. ‘아하, 이, 내가 여태까지 산 기, 듣꼬 산 기, 영감이 말여, 호랑이 듣꼬 살았든 말여.’ 몸서리 날 거 아인가베? 그래 나온 뒤에 마, 책을 가-나오기주고 불에 살라-뿐 기라, 여자가. [청중1: 아이-고]...중략...그르이 그 안사람 때문에 망헨 기라, 고마. 망헨 기라. 그래 여자가, 항-상 지가 있으야 돼. (조사자를 보며) 아가씨. 시집 가서, 남편이 어든 짓을 하거나 간에, 깊이깊이 생각하고 또, 조사해보고 그 행동을 해야 되지, 함부로 그러면 큰일나!”⁴⁹⁾

부정적인 속성을 ‘여성’의 것으로 확정짓고 ‘여성’의 ‘과오’를 ‘죄’로 논단하는 ‘남성’의 발화는 아래 자료에서처럼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그

49) 2001년 2월 25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팔풍노인정. 손기태(남, 76세)씨 연행 자료.

대로 답습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연행자의 말은 ‘여성’의 관점에서 기술된 ‘여성’의 경험을 ‘여성’이 발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담론의 틀이 ‘남성’의 것으로 전유되었기에 ‘여성’들은 단지 그 틀을 관통하면서 굴절된 목소리만을 드러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굴절만이 ‘여성’이 주체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엔 이와 같은 왜곡된 말하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성’ 발화의 이와 같은 굴절과 왜곡은, 주체화 과정이 단지 주체의 의식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자체를 형성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자료 30번> “...전략...금동 저-, 밖에, 산밖에 사람 있는 데, 거겐데. 거 사람이 하나 만-날, 도술 배운다꼬. 사람 됐다가- 뭐 짐승 됐다가-, 이르는 책이 있단다. 그 책은 아무나 몬 일으는 기라. 부정 타도 안 되고. 부정 타는데 일으면 사람 미치기 때문으로 안 되는데. 그래 그 사람은 그거루 일으는 기라...중략...그래 함분은 즈그 마누래가 가만 생각하이, 아-주 몸서리 나가, 범 돼가 나가는 그거, 으찌 몸서리가 나든지, 마 범 돼 가고난 뒤에 책, 거를 불에 열렸어. [조사자: 아이고.] 그래, 인제 그라이 어수-룩하이께 또, 개를 잡아가 간을 내-가주고 오그든? 오이, 인제 책에 그 또, 책 그거를 봐야 사람이 돼가, 즈그 어매, 간을 사좌가- 즈그 어매한테 줄-긴데, 책을 찾으이 없는 기라. 전신에 찾아도 없어. 부숙게 들바다보이, 즈그 마누래 불에 열뿌가 재가 있그든. 재에 거어 두굴두굴 구불러가, 그래가 인자 간을 사좌가 즈그 어매 들라다주구. 그질로는 마, 사람이 몬 돼고 범이 돼졌는 기라. 그래가주고 저, 즈그 마누래하고 자숙하고 마, 쾌쌌타꼬 물어, 편지뿌고 마, 산으로 올라갔다 카대. 그래, 그 사람이, 성이 흥가라 카드라....후략...”⁵⁰⁾

50) 2002년 6월 1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동명 백필경씨 자택. 백필경(여, 84세)씨 연행 자료.

<호자호랑이>의 연행에서 주목할 점은 상당수의 연행자들이 한편으로 아내의 행동을 질책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효자의 효행보다 아내의 금기 위반에 초점을 둔 서술이 아내의 과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 한계를 대리 표상하는 그녀의 ‘어쩔 수 없음’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기술한 바 있는데, 후자의 지향이 개입될 때 아내의 행동에 대한 논평적 발화는 한 작품 안에서도 상호 모순적인 양상을 띤다. 예를 들어 책을 불태운 아내의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세하게 그려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아내의 상황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로는 책을 불태운 아내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호랑이에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한 효자의 상황과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내의 행동에 대한 안타까움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아내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아내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논하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아내의 동기를 이해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한 그녀의 한계에 아쉬움을 표하는 데 머문다.

자료 6번> “...전략...여편네를 잘못 **은**었다 그런 얘기여, 여편네를. 이게 찢렸던 모냉이지. 그 호랭이 돼 가지구설라무니 그 가이 잡아오구하능 거, 어, 참 호랭이 돼설라무니 그 댕이는데 보면 찢리는 맘이 들어갔단 말여. 그랬던지 아 워디를 간 뒤에 참 호랭이를 잡으러 간 뒤에 그 주문을 갖다가 설라무니 뿔짜이다 너버력거던? 아 오뇌설라무니 인저 또 인저 그 주문을 외야 [청중: 사람이 되지.] 응. 가족을 가족을 벗구 사람이 되는데 [청중: 밤만 호랭이가 되구.] 이 깜뭇 잊어버려 가지구서 그대로는 못 외격구 그 책을 찾으니 읍단 말여...후략...”⁵¹⁾

자료 15번> “아이 여자가 보이께네 마 겁이 나, 잡아오는데 저 개를 잡아 오는데 와가주고는 봐가주골랑 이 겁이 나가주골랑 아이 고마 식겁을 하겠어. …중략…그래서 잡으이께네 사람이라. 죽으이께네 사람이라. 그러이 여자가 알망시렵어. 그 문서만 안 감직었으만 되는데, 여자가 문서를 감직었 뿌리가 그래가 화를 모해가주골랑 결국은 저 사람이 죽었어. 황팔도라, 황팔도.”⁵²⁾

위 6번 작품의 연행자도 ‘아내를 잘못 얻었다’고 말하고 호랑이에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을 ‘환장할 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아내가 느낀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위 15번 자료의 연행자도 아내의 행동 때문에 남편이 영영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여자를 ‘알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아내가 느낀 공포에 대해서는 그녀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자료 3번> “…전략…자고루 여자가 요물이라. 이놈으 여편네가 이걸 엿 봤어. 엿보니까, 아 자기 남편이 절이 올라가더니만 웬 책 하나 지봉쳐마서 쑥 끄내다가서 묘 많은 데 가서 ‘두런두러두런두런 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 하구 ‘못다나못다나’ 하더니만 흥허구 재주를 넘더니만 큰 호랭이가 된단 말여. 하이구 이거 부인네가 큰일났어. 호랭이하구 살웅겨여. 하이구 내가 이거 큰 일이 나갔다구 하구서 그 책을 갖다 불을 뇌빠렸다 이 말여, 끄내다가서. …후략…”⁵³⁾

위 3번 작품의 연행자는 아내의 행동을 ‘여자가 요물’이라는 말로 간단

51) 『대계』 4-5, 410~416면.

52) 『대계』 7-12, 721~723면.

53) 『대계』 4-4, 449~452면.

하게 논평하고 있는데 그 어조는 다분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 연행자도 ‘여자가 요물’이라는 한 마디 말 외에 다른 논평을 덧붙이지지는 않고 있다. 그는 오히려 효자의 아내가 남편의 변신을 목격하는 장면을 곡진하게 그려내고 이를 통해 아내가 느낀 감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각편에 따라서는 아예 호랑이에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한 ‘효자’의 상황을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해석하거나 아예 아내의 동기에 대한 공감만을 표현하고 ‘효자’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효자보다 아내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료 17번> “없는 거를 마 자꾸 내 놓으라 카는 기, 부모가 딱한 사람이 라. 사람인데, 그래도 불청을 안 하고 부모 소원대로 한다고, 그래 원을 하는데, 그래 인자 하도 부모한테 효성이니께 산에 범이 니려와여 그 들어 반 기라...중략...참 효자는 효잔데. 그러이 장개로 가 가지고 지금 내우간에 한참 재미 있을 고 땀데. 아아도 없고 이럴 땀데, 그러이, 밤에 자다가 보이께 남편이 없어...중략...그러이, 여자가 가마이 생각해 보이, 남자가 와 가지고 사람이 돼 가 있을 적에 그 책을 없애 **뺏**으른 되는데. [갑자기 큰 음성으로] 어떻게 마 그기, 정신이, 혼령을 덮어 씌고 범이 되었으이께, ‘내가 한테, 저 **절**에, 짐승강 한테 자느냐. 예라, 이 책을 보이께, 책에 요술을 책에 붙어가 있으니, 책을 마 지 사라뺏 **뺏**이 없다.’ 그래 빼가 사라**뺏**다 말야...후략...”⁵⁴⁾

위 17번 자료의 연행자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효자 아내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행위 동기를 서술할 뿐 아니라 그녀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정서에 바탕을 두고 전체 내용을 연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

54) 『대계』 8-8, 668~671면.

에서 효자는 부모가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해도 무조건 수용하는 인물로 그려지며 효자의 부모는 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억지스러운 성격의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는 효자의 효행을,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상태 내지는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로 해석하는 연행 주체의 의식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효자의 변신은 ‘효’를 실천하려는 신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단지 부모의 청을 거절할 수 없는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강제된 일처럼 그려진다.

더구나 연행자는, 이제 막 결혼한 터라 부부 간의 정이 두터울 때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아내로서는 밤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내고자 할 수밖에 없음을 아내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구술하고 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밤마다 호랑이로 변신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변신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강렬하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는 것이다. 연행자는 밤마다 나가는 남편을 궁금해 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아내의 심리나, 남편의 변신 장면을 지켜보는 아내의 내면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내려 애쓰고 있다.

<효자호랑이>와 같이 ‘여성의 죄’를 형상화하는 비극적 구전서사는 그 자체로 젠더 규범이 지시하는 특정 정체성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를 보여 주며, 이들 서사의 연행은 해당 시나리오를 개별 주체가 스스로 기입하고 수행하는 과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극적 구전서사에 표상된 ‘여성의 죄’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젠더화된 주체를 구성해내는 ‘주체화’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자 권력 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연행이 반복되면서 연행 주체의 해석적 지향도 변화하고 연행 주체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도 변화하기에 연행 주체가 이 젠더화의 궤도를 이탈할 기회도 그만큼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행자들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

거나 ‘남성’ 동성(同性) 집단으로 구성된 연행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은 탈주의 가능성을 징후적으로 예고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담론의 틀에 내재한 논리적 결함에 기인하는 균열 조짐이다. ‘여성의 죄’로 확정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한계를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논리적 한계나, ‘죄 지은 여성’의 이미지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을 끝없이 타자화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젠더 경계를 설정할 수 없는 ‘남성’ 주체의 필연적 모순이 처음부터 이탈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6. 나오며

구전서사 연행이 젠더화 기획과 관련해서 수행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바로 ‘반복성’이다. 구전서사 연행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인준된 정체성의 내용을 기입하고 수행하는 작용을 통해 ‘주체 생산’에 기여한다면 ‘반복’은 특정 내용의 정체성 시나리오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이 ‘죄 지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의 시나리오를 수행한다고 할 때 ‘반복적인 연행’은 재해석과 재창조를 되풀이하는 순환 고리 안에서 ‘여성의 죄’라는 이미지를 점점 더 강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반복성’이 수행적 효과에 균열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이다. 전해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창조해내는 연행의 순환은 전승의 지속적 전통만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행자들은 이야기에 대한 태도나 이야기판의 분위기에 따라, 또 연행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전통의 지속성에 강하게 견인되어 전해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전수하는 데 치중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연행자

의 시각과 의식에 따른 재맥락화의 과정을 피할 수 없기에, 전달자의 지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연행이 반복될수록 '지속'에의 지향과 함께 '변화'에의 지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연행이 반복되고 전승이 지속되면 연행 집단과 연행 현장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연행 조건 및 연행 의식 또한 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변화는 연행에 참여하는 이들의 해석적 관점을 이동시켜 구전서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재창조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행의 '반복'이 일방적인 정체성 기입에서 벗어나는 '탈주'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전서사의 연행은, '연행의 공유'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연행 주체 상호간의 대화'라는 담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연행 층위에서 서사 층위와 일정하게 구분되는 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서사와 연행의 층위가 일관되거나 동질적이지 않은, 비균질적인 목소리를 드러내는 바로 그 균열의 지점으로부터 의미망은 점차 다층적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서사와 연행 층위 사이에 발생한 균열이 이처럼 생산적인 의미 생성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균열이 의미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연행 주체를 끌어들이는 개방적인 담론의 장을 담화 체계 안에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담론의 장에서 연행 집단 내부의 서로 다른 입장과 서로 다른 시각이 '날 것' 그대로 충돌하고 곱씹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전서사는 점차 다양한 결을 드러내는 복합적인 의미망을 획득해 나간다. 구전서사에 내재한 다성성(多聲性)은 이처럼 '연행'이라는 특수 조건이 빚어낸 균열상의 효과로 등장하는 한편, 그 균열을 따라 여러 갈래 길로 뻗어나가면서 단일한 해석, 일방향적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생산적인 의미망을 획득해간다.

참고문헌

1. 자료

- 임석재, 『임석재 구전설화전집』 1~12, 평민사, 1987~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 및 부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9.

2. 국내논저

- 강진옥,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 『민속연구』 1,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1, 81~101면.
김기란, 「한국 근대 계몽기 신연극 형성 과정 연구-연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50면.
김명희, 「설화 속에 나타난 호랑이와 여성」, 『강남어문』 9,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1996, 143~178면.
김상봉,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한길사, 2003, 1~397면.
김수연,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난 효와 여성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323~341면.
김종대, 「황팔도전설의 전승과 존재의미에 대한 일고찰-갑오농민전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22, 중앙어문학회, 1992, 115~134면.
라인정, 「구비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성격 고찰」, 『어문연구』 18, 어문연구학회, 1988, 373~396면.
오종근, 「한국구전 효행설화의 연구-부모독병의 치료효행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연구』 12,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1987, 207~225면.
임철규, 『그리스 비극-인간과 역사에 바치는 애도의 노래』, 한길사, 2007, 1~613면.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정체성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07, 1~522면.
최래옥, 「한국 효행 설화의 성격 연구-효자호랑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0, 민속학회, 1977, 111~136면.
최재선, 「구비설화의 금기모티브에 나타난 민중의식-장자못 전설, 우렁미인, 효자호랑이 전설을 중심으로」, 『모악어문학』 2, 전주대 국어국문학회, 1987, 127~147면.
최혜진, 「효행설화의 구조와 의미-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 숙명여대

어문학연구소, 1996, 155~174면.

3. 외국논저

뒤르켐,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한국사회학연구소, 민영사, 1992, 1~611면.

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 박옥출 옮김, 삼성출판사, 1997(11쇄), 1~371면.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 셋길, 1993, 1~162면.

_____,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1994, 1~441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1998, 1~235면.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1~615면.

테리 이글턴, 『우리 시대의 비극론』, 이현석 옮김, 경성대 출판부, 2006, 1~551면.

프리드리히 니체, 『유고(1870년~1873년) 디오니소스적 세계관·비극적 사유의 탄생 외』 (니체 전집 3), 이진우 옮김, 책세상, 2001, 1~470면.

_____, 『유고(1869년 가을~1872년 가을)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에 대하여 외』 (니체 전집 4), 최상욱 옮김, 책세상, 2001, 1~545면.

피에르 부르디외, 『남성지배』, 김용숙·주경미 옮김, 동문선, 2000, 1~158면.

_____, 『구별짓기』 상·하,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1~671면.

Claude Lévi-strauss, "The Structural Study of Myth", trans. C. Jacobson & B. G. Schoepf, *Structural Ant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1963, pp. 200~210.

Edmund R. Leach, "Kimil: A category of Andamanese thought", *Structural analysis of oraltradition* Pierre Maranda and Elli KongPs Maranda eds., Philadelphia: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1, pp. 22~48.

ABSTRACT

Th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oral-narrative of *the faithful son transformed into tiger* (‘효자호랑이’) Producing the Gendered Subject

Kim, Young-Hee

The oral-narrative of *the faithful son transformed into tiger* (‘효자호랑이’) is the story about a man that failed to transform into tiger because his wife had burnt the book to make the transformation possible. Tragic plot of the story includes a narrative kernel that the sacred ‘male’ runs into *pathos* because of *hamartia*(tragic flaw) representing female’s faults depending on tragic logical necessity.

The hierarchical-contrastive structure of the sacred and the profane is exhibited in components of the narrative.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mage of ‘male’ represents the sacred and the image of ‘female’ the profane, through which the categories of the gender as ‘male’ and ‘female’ are naturalized and distinguished. This strategy has made us to regard the primordial nature of the sacred ‘male’ as superior to the profane ‘female’, to justify and inscribe it in his and her identity unconsciously as well.

The performance of oral-narratives such as *the faithful son transformed into tiger*(‘효자호랑이’) is the processes of enacting the gender-identity of male or female and the performative mechanism is the matrix which produces the gendered subject. Furthermore, when the performance of the story presents the structure having an effect of initiation into a society, it works on individual performers as a normalization system based on the criterion and standard of social homogenization.

But the symptoms of cleavage and escape are revealed as logical defects which necessarily exist in the project of the gendered. The gender-border of the male which is made by objectifying the female

exclusively, depends on the gender-border of the female logically, since its category cannot be constructed without establishing the boundary of 'female'. And the male-subject who is an unstable being cannot but call for the female-images to make an alibi to deny melancholy and psychic lack. So the analysis of narrative and performance of the oral-narrative, "the faithful son transformed into tiger", makes it possible to discover that the gendered project connotes a contradiction and cracking in itself.

Key Words oral-narrative, tragic narrative, performance, gender, gender-identity, gender-border, male, female, the gendered, the gendered subject, *hamartia*(tragic flaw), tragic plot, subjectivation, initiation, performative effect, polyphony of performance, cracking, flight

논문투고일 : 2009. 10. 18
심사완료일 : 2009. 11. 22
게재확정일 : 2009. 12. 04